

다산포럼

말이라 불리는 사슴에 대하여



윤 지 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

한 해가 저물고 새해의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는 시기에 뜬금없이 사슴 이야기라니! 내년이 사슴처럼 순한 이미지를 가진 양의 해이기는 하지만, 사슴따라는 것이 있을 리도 없다. 물론 사슴은 ‘십장생’ 가운데 하나이고 정조가 신하들에게 새해 선물로 십장생도를 하사한 기록도 있다 하니, 이런 역사까지 동원하면 아주 영통하랄 수 없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슴이 연말에 돌연 화젯거리로 떠오른 것은 현실정치와 관련해서다. 일전에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회상을 정의하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선정하여 한동안 좌 없는 짐승인 사슴(鹿)과 말(馬)이 말밭에 오르내렸다.

교수들의 혼론이 이 용어로 모인 것은,

진나라 때 환관 출신의 권력자 조고가 반대를 가려내려는 간계로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우긴 고사가 현재의 정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한 때문이다.

십상시(十常侍)니 하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권력자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세론도 그렇고, 자명한 진실을 호도하고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실도 그렇다.

사실 이 사자성어는 진즉부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재판에서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괴상한 판결을 보고, 한 현직 부장판사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한 데서부터 주목 받았다.

어찌 대선 개입 문제뿐이겠는가? 그 국정원이 위조문서로 간첩 조작을 하고도 말짱하게 건재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믿지 않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정부와 달리 보는 과학자들을 총북으로 몰아붙이고, 세월호 참극의 진상을 밝혀 달라는 유족의 당연한 요구조차 쉽게 수용되지 않는 데다, 청와대 안팎의 현존하는 권력 다툼을 문서 유출 문제로 변조하는 최근의 행동까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현대판 조고의 특세는 이 시대가 정권 당시와

같은 ‘말세’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이쯤 되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으로 알려진 사슴의 진짜 슬픔은 신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간신배들이 발호하는 이 시대의 어둠 탓인 듯이 보인다. ‘무척 높은 족속’이었던 사슴이 만약 신문을 읽을 줄 안다면, 자신을 막무가내로 말이라고 우길에도 거기에 동조하는 자나 언론매체는 땡땡거리는 반면 사슴이라고 제대로 호칭하는 측은 밀려나고 억압받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될 터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한다. 고려숙요 ‘청산별곡’에 사슴이 등장하는 유명한 대목이 있는데, 그 구절은 이렇다. “가다가 가다가 들노라, 사슴이 집대에 올라 해금을 커거를 들노라.” 여기서 ‘집대’란 ‘당간’ 즉, 사찰의 불사를 알리는 깃발을 뜻하는데는 갖다들 뜻한다. 사슴이 이 깃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다니, 국문학자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장면을 두고 해석이 구구한 것도 이해가 간다. 사슴이 진짜 사슴이 아니라 사슴 탈을 쓴 광대라는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구절의 의외성으로 미루어 이것을 일종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는 편인데, 실상 사슴의 이 일

견 괴이하게 보이는 행태는 정작 사슴보다는 그런 장면을 그려낸 화자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전하고 있다고 해야 할 법하다.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이 이 속요가 무신정권이 지속되던 고려시대 중엽 고향을 잃은 유민(流民)들의 한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디로 던진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 울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면, 집대 위에 올라 해금을 켜는 사슴의 모습은 그 위험한 세상에서 이들이 꿈꾸는 판타지이자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은유가 아닐까?

사슴 이야기가 자주 가치를 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무지컬로도 영화로도 유명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도 열릴 떠오른다. 이 작품은 혁명 전야의 러시아에서 짜르의 폭압 아래 마을이 해체당하고, 떠돌게 되는 유대인들이 힘겹게 일구어 나가는 강박한 삶을 가파른 지붕 위에서 위태롭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에 비유한다.

억울하게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철타에 오르는 일이 속출하는 시대다. 집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오늘의 사슴들! 누가 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가?

社 說

광주·전남 지자체 기업 친화력 약하다니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친화성이 낮은 것은 아직도 풀어야할 기업규제는 많고 기업운영을 돕는 행정절차는 까다로운데다 창업을 위한 혜택은 인색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밝힌 ‘2014년 기업환경 순위 및 전국 규제지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장흥과 곡성이 기업제검도에서 S등급을 받아 기업 하기 가장 좋은 자치단체로 꼽혔다. 여수와 목포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기업 유치지원 부문에서 상위 5%인 S등급을 받았고, 화순은 중소기업 창업지원 부문에서 S등급에 올랐다.

반면에 광주 광산구와 담양·고흥은 공장 설립 부문에 낙제점 수준인 D등급을, 광주 북구·남구·영광·보성·신안군은 C등급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광주 동구와 북구·광산구가 C

등급, 서구와 남구가 D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았다.

자치단체장마다 입이 닳도록 외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창업이나 기업 유치 등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자를 이끌어 내고 창업을 유도하려면 결국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특혜도 줘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고강도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경제관련 공무원 조직과 업무라인을 재검점하고 과감히 쇄신할 필요가 있다.

기업제검도에서 1위를 한 지역의 비결은 공무원의 친절이었다. 대가가 없을 것 같으면 복지부동하거나 자신의 보신을 일삼는 공무원은 과감히 갈아 치워야 한다. 기업과 가까이 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는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금호타이어 회생 초입부터 파업해서야

5년 만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한 금호타이어가 경영정상화 시작부 터 난관을 맞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워크아웃 종료 하루만인 24일과 25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29일~30일에는 강도를 높여 4시간씩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부분파업이 계속되면서 15%가량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7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협상 제시간에 인상을 보면 25.6% 인상에 달한다”며 “동종업계 1위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 보상을 약속했는데도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워크아웃 기간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한 보전 등 인상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가 ‘홀로서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노조의 파업은 고객의 신뢰 추락은 물론 5년간의 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이 진행되면 타이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돼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대외신인도 추락에 따라 회사 정상화는 그만큼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워크아웃 기간 노조원을 비롯 한 임직원들이 임금 삭감 등 고통을 감내해 경영정상화를 이룬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 지분 인수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노사 입단협은 매년 하게 돼 있는 만큼 회사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면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측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노조의 진정성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노사 양측 모두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이라는 아픈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NGO 칼럼

문화수도 광주와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 청년들



정 두 용
청년문화허브 무한 대표

10년 정도 광주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해 오며 생긴 질문 하나가 있다.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청년들은 주인으로서 살고 있나?”

도시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적어도 광주, 그리고 청년에 한정지어 말하자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광주 청년들의 대답이다. 주변 청년들의 말을 종합해서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기껏해야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인 것 같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문화 프로젝트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집객대상. 둘째, 자원봉사자 (라고 불리는 무임금 혹은 저임금 근로인력). 셋째, (임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인) 보조인력.

이런 부분들이 종종 마음에 걸렸고, 뭔가 이상했다. 청년들은 여러 문화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업의 객체나 이용 대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 지금 문화중심도시인 광주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들은 자원봉사자나 보조인력으로 일하다 사업기간 동안만 활동하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된다. 그것의 의도되었든, 아니든 청년들은 문화 소모품이 되고 만다.

여러 문화기관에서 일하며 나는 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문화중심도시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화 사업들로 정말 광주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연계하고 모여 본인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관 주도의 탑다운 방식 문화 사업에서 벗어나 청년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광주에서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의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청년문화허브 무한’을 2013년 2월 설립하게 되었다.

청년문화허브 무한은 이런 꿈을 함께 하는 청년들이 모여, 하고 싶은 문화기획을 일 년 내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문화놀이터이자 문화기획학교이다. 20대 청년들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뿐만 아니라, 직접 문화기획자가 되어 본인이 상상하는 어떤 일이라도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문화기획 단체이다.

현재 무한의 주요 프로젝트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고 이야기 나누는 ‘유유자적 문화살롱’, 청년들이 실천적인 문화기획을 배우고 실제로 실행하는 ‘청년문화기획학교’, 광주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야? 라고 흔히 묻는 타지 사람들의 질문에 무등산과 충장로 말고는 선택 대답이 나오지 않는 공백함에 시작하게 된 ‘구석구석 광주여행’ 등이 있다.

앞으로 무한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 단순히 하나의 청년문화단체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청년문화의 ‘허브’로서 청년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작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청년단체들은 현재 각자 산발적으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무한은 20대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참가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기 고

기술금융 활성화의 관건



김 승 관
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부지점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을 위한 기술금융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에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기술금융이란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이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한국 경제는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이에 자금줄을 대는 금융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기반의 새로운 금융시

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 중인 필자가 새로 도입된 기술금융을 통해 지원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야구장 의자 컵홀더에 끼워 사용하는 음식 받침 테이블을 생산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생산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신용등급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웠으나 예비창업자제도를 통해 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이 나와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통해 상당한 매출액을 실현하였고 내년에는 여러 야구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 소재 B기업은 입 냄새 제거 치약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화자금을 신청하였다. 오랜 업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지원이 어려웠으나, 지식재산보증제도를 통해 평가한 결과 기술력 우수기업으로 평가되어 생산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특허를 통해 올해 6억원 이상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제도로 지원이 어려웠던 이들 기업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통해 원활

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기술금융의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으로 포장하는 등 기술금융 상당수가 편법 운영되고 있다. 요즘 은행들은 기술금융 실적 압박에 시달려 단순 제조업에까지 읍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행 초기 기술금융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권,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세뭇게 정립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지속적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은행 차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정 부분 자기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금융권은 현재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외부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기술 평가 신청이 폭주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행도 자체 기

술평가 인력 확보와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금융권 직원들은 기술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경우 ‘무늬만 기술금융’의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R&D와 사업화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식재산 창출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금융권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수료 인화와 함께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옛 사자성서에 ‘이택상주(麗澤相注)’라는 말이 있는데, ‘두 연못이 이어져 서로 물을 댄다면 어느 한 쪽만 물이 마르는 일이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과 금융권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축면 지원한다면 기술금융 중심의 건강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술환경에 놓여 있는 호남지역에서는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방안을 다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無 等 鼓

1980년대 중반, 대학생들 사이에 해남 땅끝 여행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 언뜻이면 해남군 갈두리 땅끝마을은 전국에서 찾아 온 대학생들로 붐볐다. 여행이라기보다 순례(巡禮)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일종의 의식(儀式) 같은 방문이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서 가는 친구들도 많았다. 대학생들은 힘들게 찾은 땅끝마을에서 친구들과 소주잔을 앞에 놓고 시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이성과 함께 찾은 친구들은 최남

단이라는 지정학적 명칭이 주는 멜랑콜리한 기분으로 술잔을 기울였다.

목적지야 어찌됐건 땅끝마을을 찾은 이들은 맨심 사이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우울한 기분에 젖었다가도 다음날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희망을 가슴에 품었다.

이성숙의 소설 ‘우리는 땅끝으로 간다’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절망을 안고 땅끝을 찾았다. 남은 것은 절망뿐인 ‘빈센트’, 불치병에 걸린 ‘마리’, 왕따에 괴로워하는 ‘강홍’, 트랜스젠더 ‘사인’. 세상 밖으로 내몰린 네 명의 청소년들은 자살여행으로 땅끝을 선택한다.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연 이들은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삶속으로 되돌아 온다.

절망을 안고 찾은 막다른 곳, 땅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아마도 이곳이 해남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충남 당진 왜목마을도 일몰과 일출을 함께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다. 서해안에 선 유일하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일몰은 덩이다. 해안이 왜거리 목처럼 튀어나온 탓에 해돋이 감상이 가능한 곳이다.

다. 화려하고 장엄한 동해 해돋이와 달리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가 일품이다.

15년 전 처음 찾았을 때는 한적했지만 요즘은 북적이는 명소가 됐다고 한다.

해남이 하면 진도 세방낙조를 으뜸으로 친다. 다도해의 작은 섬 수면들을 수놓는 붉고 노란 오메가(Ω)는 낙조 감상의 극치다.

세방낙조에서 10km,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에 팽목항이 있다. 팽목항에도 멋진 일몰과 일출이 있다. 4월 16일 이후 팽목항에 가슴을 묻어버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통권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신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